

박봉석 도서관문화상을 제창함

남 태 우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사회사상이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다. 그것은 역사적·사회적 조건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산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사상이란 그 기반이 되는 사회의 구조관련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관념적·구성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상과 사회의 중간에서 그 매개적 기능을 하는 것은 곧 인간이다. 도서관 문화나 사상도 이러한 보편적 사회사상과는 다르지 않다. 라이브러리언은 매개적 기능을 주된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는 전문직이다. 특히 기록자료와 이용자간의 매개자적인 기능을 수행한 도서관인 중 박봉석은 근대의 가장 뛰어난 라이브러리언이다.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기록자료를 후세에 전승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인 그의 업적은 우리를 숙연케 하고도 남는다.

박봉석이 도서관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31년 3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관(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신)의 직원이 되면서부터이다. 도서관계의 선구자인 박봉석은 일제치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사서로 재직하였다.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약 15년간을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 해방 이후에도 국립도서관부관장(1945), 국립도서관학교교수(1946), 조선도서관협회위원장(1946), 전무이사(1946), 조선서지학회 상무이사(1947), 국화여자전문대학학장(1946), 동국대학교강사(1946), 불교청년단장(1945) 등 1인 다역을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원종린이 그의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1980)에서 주장한 바처럼 박봉석은 ‘도서관수호의 아버지’이다.

그의 강한 민족의식이 도서관문화의 창달과 연계되어 많은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전반기에는 주로 불교관련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가 중앙불교전문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며, 후반기, 즉 도서관과 연을 맺은 a터는 분류와 목록에 관련된 저작 및 논문을 주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주로 조선총독부도서관보인 ‘文獻報國’을 비롯하여 조선도서관연구회 기관지인 ‘朝鮮之圖書館’, 그리고 ‘佛敎’ 등의 잡지들을 통해 30여 편의 연구논문, 도서해제를 발표하여 학자사서로서도 유감없이 그의 역량을 과시했던 라이브러리언이었다. 특히 ‘조선십진분류표’가 1947년에 발표된 당시에 당시 국립도서관장이며 도서관협회 위원장이었던 李在郁은 “과연 이 신분류표는 ‘暗夜의 太陽’ ‘沙漠의 綠地’와도 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극찬하기까지 하였다. 그가 1948년에 발표한 ‘분류표의

통일문제'라는 논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굉장한 선견지명적인 식견이었다.

라이브러리언으로서 박봉석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시기는 광복으로부터 남북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인 1945년 8월부터 1950년 7월까지 5년여의 기간이다. 광복과 더불어 제일 시급한 일은 국립도서관을 일본인으로부터 접수하는 일과 자료 수집이었는데, 8월 17일에는 이른바 '문헌 수집대'라는 희대의 독특한 그룹을 만들어 당시의 귀중한 자료와 출판물을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립도서관도서관보호협력회'를 조직하여 국립도서관의 도서를 미군정에서 반출하려는 시도를 항의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까지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벼슬'과 '돈'에 혈안이 되어 난무하고 있을 때 박봉석은 거리에서 '문헌수집대'라는 완장을 두르고 거리에 마구 버려지는 포스터와 뼈라 수집에 여념이 없었다. 도서관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한 예이다. 그리고 자료수집은 발(足)로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의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도서관계의 문제점들을 협의하기 위한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다.

라이브러리언으로서 박봉석을 미국의 듀이(M. Dewey)나 인도의 랑가나단(S. R. Ranganathan)에 비견하는 것도 愚見일 뿐이다. 도서관이라는 사회·문화적 장치에 대한 그의 사랑, 정열 그리고 유별난 '책사랑'은 위의 세 사람은 닮은 꼴이지만, 박봉석이 가장 뛰어난 라이브러리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분류법을 고안한 것이나, 도서관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서양성 교육을 위한 도서관학교를 개설하여 선도하고 담당했던 것과, 도서관협회의 주도적 결성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아주 유사하다. 이외에도 박봉석은 도서관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아이디어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도서관'이라는 장이 들어가도록 한 장본인기도 하다. 창조적 교육은 도서관을 기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일찍부터 가진 선각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듀이나 랑가나단의 업적은 후진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는 기회를 가졌던 반면에, 박봉석의 도서관사상은 두절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박봉석은 한국의 듀이, 그리고 랑가나단이라고 불리울 만큼 큰 족적을 남겼지만 '불운의 라이브러리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차체에 그 동안의 무관심과 홀대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가 월북이었던 납북이었던가를 차치하고 그를 기리는 도서관문화상을 제창한다. 사회적·문화적 장치인 도서관에 대한 그의 강한 집념과 개척자적인 정신과 라이브러리언십을 영원히 기리는 '라이브러리언 상'을 간절히 회구한다. 지금까지는 잊혀진 불운한 라이브러리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도서관 사상과 라이브러리언 정신이 부활하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 모택동이 북경대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이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북경대학교도서관 2층에 흉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박봉석의 흉상도 제작하여 도서관협회에 전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